

보도해명자료

(‘16. 10. 14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국표원, 갤럭시 노트7 교환 내년까지 연장논의'(‘16.10.14, 이데일리)

1. 기사 내용

- ☐ 정부가 삼성이 올 연말로 정한 갤럭시 노트7의 교환·환불 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.
- 국표원은 삼성이 제품의 위험성 등 안전문제를 고려해 교환·환불 기간을 3개월 앞당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, 이 기간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보완요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(국표원)의 입장

- ☐ 갤럭시 노트7의 교환·환불에 대한 정부입장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, 소비자 안전 확보라는 리콜 취지를 최우선 고려하여 삼성측의 자발적 리콜 계획을 심의할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보과 오유천 과장 (043-870-5430)
남택주 연구관 (043-870-5432)